

## 歐陽修的「與民同樂」에 대한 小考

— <醉翁亭記> · <豐樂亭記>를 중심으로 —

魯 長 時\*

—<目 次>—

I. 서 론	2. 문학기론과의 유관 관계
II. 與民同樂의 형성배경	III. 與民同樂의 실례
1. 정치사상적 배경	<豐樂亭記> <醉翁亭記>
(1) 節用愛民과 寬簡의 정치	IV. 결 론
(2) 與民同樂의 관리상	

### I. 서 론

歐陽修의 문학작품, 특히 그의 몇몇 주요 記文을 읽을 때 그 작품들의 주요 주제의 하나로 관리와 백성이 함께 어울려 즐긴다는 與民同樂을 접하게 되고, 그 때마다 자연스럽게 <醉翁亭記> · <豐樂亭記> 같은 작품을 떠올리며 그 내용을 생각하게 된다.

《孟子·梁惠王章句下》에서도 “윗사람이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면 백성 또한 윗사람의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요, 윗사람이 백성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면 백성들 역시 윗사람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할 것입니다.(樂民之樂者, 民亦樂, 憂民之憂者, 民亦憂.)”라고 하여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진정한 위정자임을 역설하였는데, 따지고 보면 이 또한 歐陽修가 말한 與民同樂의 思想과 다름없다.

\* 영남대학교 동양어문학부 중어중문학전공 특임교수

또 歐陽修와 같은 시대의 范仲淹도 “선비는 마땅히 천하 사람의 걱정을 앞서 걱정하고, 천하 사람들이 즐거워한 이후에 즐긴다(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sup>1)</sup>라고 하여 先憂後樂을 이야기하였는데, 이 또한 與民同樂의 思想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먼 옛날부터 歐陽修가 살았던 그 시대까지 정치사상이 되었던 문학주제가 되었던 與民同樂의 사상이 면면히 이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여민동락의 사상의 근원을 캐어 보고자 함은 아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이어져온 여민동락의 사상이 歐陽修에 이르러서 다시 말하면 歐陽修의 문학작품 속에서 중요한 주제로 제기되었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

특히 慶曆新政의 실패로 歐陽修가 滁州로 폄적되면서 그가 쓴 문장들을 보면 우국애민과 부국강병을 지향한 그의 정치적 신념에는 변화가 없지만, 지난날의 투쟁적이고 격정적인 투의 문장은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慶曆 5년(1045년)에 滁州知州를 거쳐 揚州·潁州 등의 지방관을 지내면서 節用愛民사상을 바탕으로 寬簡의 정치를 실행하여 與民同樂을 시도한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작품인 <豐樂亭記>와 <醉翁亭記>를 중심으로 그의 여민동락과 관련된 歐陽修의 견해와 주장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II. 與民同樂의 형성배경

우리는 먼저 歐陽修 작품 속에 與民同樂이라는 주제가 형성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여민동락이라는 주제는 관리와 백성이라는 두 주체에서 형성되므로 여기에는 반드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관리의 정치사상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고, 또 작가의 작품 속에 하나의 주제로서 자리잡았을 때에는 틀림없이 그 사람의 문학기론과도 연

1) 歐陽修, 《歐陽修全集》(臺北: 世界書局), 1983, 卷20, <資政殿學士戶部侍郎文正范公神道碑銘>

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민동락의 작품을 살펴보기에 앞서 작가의 정치적 사상과 문이론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 1. 정치사상적 배경

歐陽修는 與民同樂하기 위해서는 節用愛民과 寬簡의 정치사상을 주장하고 또 여민동락의 주체가 되는 관리로서의 진정한 모습, 즉 여민동락의 官吏像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민동락과 관련된 愛民과 寬簡의 정치사상과 여민동락을 주도할 관리상에 대해서 歐陽修의 견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 (1) 節用愛民과 寬簡의 정치

여민동락의 바탕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며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歐陽修는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백성들이 생산한 것을 절약하여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관리가 節用愛民하는 것이 여민동락할 수 있는 기본조건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節用愛民의 주장은 歐陽修의 <原弊>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그는 <原弊>의 서두에서 ‘농업은 천하의 근본으로 왕도정치가 농업에서 생겨나는 것’이라 하여 전통 농경사회의 농본주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관리들은 농업에 대해 극도로 천시하여 농사에 관계된 이야기만 해도 저속한 이야기를 한다고 비웃으니, 歐陽修는 관리로서 정치의 본말도 모른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농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비용을 절약해서 농민을 아끼 줄(節用愛民) 모르는 관리들에 대해서도 비판하였다. 당시로 보아서는 농업이 국가경제의 핵심이니 당연한 지적임은 틀림없다.

孟子는 ‘산 사람을 잘 봉양하고 죽은 사람을 잘 장례하는 것이 왕도의 근본’이라 하였고, 管仲은 ‘창고가 가득 차 있어야 예절을 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농업이란 천하의 근본이고 왕도정치가 여기서 생겨나는 바이니, 옛날 나라를 다스리던 사람들은 감히 농업을 홀시한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의 관리들은 그렇지 않아 세금을 기재한 장부책이나 뒤적이고 송사사건이나 판정하면 그만일 뿐, 농사에 관한 이야기만 들어도 오히려 서로들 간에 비웃으며 저속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그들은 부세나 비용을 거둬들이는 일을 급선무로 알고 농업에 힘쓰는 것이 우선적인 일임을 모르니, 이것은 정치의 본말을 아직 깊이 연구하지 못한 것이다. 혹 농업에 힘써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더라도 비용을 절약해서 농민을 아껴야 된다는 것은 모르니, 이것 또한 농업에 힘써야 하는 방도를 완전히 파악한 것은 아니다. (孟子曰, 養生送死, 王道之本也. 管子曰, 倉廩實而知禮節. 故農者, 天下之本也, 而王政所由起也, 古之爲國者未嘗敢忽. 而今之爲吏者不然, 簿書聽斷而已矣. 聞有道農之事, 則相與笑之曰鄙. 夫知賦斂移用之爲急, 不知務農爲先者, 是未原爲政之本末也. 知務農而不知節用以愛農, 是未盡務農之方也.)<sup>2)</sup>

歐陽修는 다음 단락에서 節用愛民하지 않은 결과로서 생긴 폐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즉, 옛날과 지금을 대조·비교하여 옛날에 정치를 한 사람은 상하가 서로 협조하여 ‘하루의 비용(一日之用)’과 ‘일년의 경작소출(一歲之耕)’을 절약하여 ‘삼년이면 일년의 여유분을 비축하였다(三年而一年之備)’.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경작조건이 옛날보다 못하지 않는 데도, 백성들은 “수확이 끝나자마자 키질하고 난 쌀겨나 밀기울 또는 쪽정이나 피를 먹고, 혹은 도토리를 채집하고 풀뿌리를 저장해 놓았다가 겨울과 봄을 넘긴다. 쌀겨나 밀기울 도토리 같은 것은 孟子가 말한 바 개나 돼지가 먹는 음식이지만 백성들은 연말이 되면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다 불행히 수재나 한발이라도 한번 만난다면 굶어 죽은 시체가 서로를 깔고 베는(場功甫畢, 簸糠麩而食秕稗, 或采橡實畜菜根以延冬春. 夫糠核橡室, 孟子所謂狗彘之食也, 而卒歲之民不免食之! 不幸一水旱, 則相枕爲餓殍.)” 상황에 이르렀으니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본적으로 여민동락을 할 수가 없다.

2) “같은 책”, 卷9

그래서 그는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요컨대 백성들은 힘을 다해 경작하되 손해를 끼치는 폐단을 없게 하고, 조정에서는 백성의 힘을 헤아려서 비용을 절약하면 백성과 국가는 부유해질 수가 있을 것이다(要在下者盡力而無耗弊, 上者量民而用有節, 則民與國庶幾乎俱富矣.)”<sup>3)</sup>라고 하여 ‘백성의 힘을 헤아려서 비용을 절약하는 것(量民而用有節)’, 즉 節用愛民을 제시한 것이다.

歐陽修는 이처럼 절용애민을 주장하면서, 치술 방면에서는 寬簡의 정치를 주장하였다. 《宋史·歐陽修傳》을 보면, 寬簡의 정치에 대한 歐陽修의 견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歐陽修는 처음 저주에서는 호를 취옹이라 하였다가 만년에는 육일거사로 바꾸었다. ……무릇 歐陽修는 몇 개의 군을 다니며 다스렸지만 다스린 흔적을 드러내지 않고, 명성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관대하고 간소하게 하여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니,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여겼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 ‘정치를 함에 관대하고 간소하게 하다가 일이 문란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멋대로 하는 것을 관대함으로 이해하고 대충하는 것을 간소한 것으로 여기면 정사는 문란해져서 백성들은 그 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관대한 것이란 가혹하지 않다는 것이며 간소하다는 것은 번잡하지 않다는 것일 뿐입니다’(修始在滁州, 号醉翁, 晚更号六一居士…… 凡歷數郡, 不見治迹, 不求聲譽, 寬簡而不扰, 故所至民便之. 或問爲政寬簡而事不弛廢, 何也?)曰: ‘以縱爲寬, 以略爲簡, 則政事弛廢而民受其弊. 吾所謂寬者, 不爲苛急; 簡者, 不爲繁碎耳)’

요컨대 ‘정치를 하는데 있어 백성들에게 관대하고 가혹하지 말아야 하며 간소하게 하고 번거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寬簡’의 원칙은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을 관대하고 간소화해 줌으로써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歐陽修는 <本論><sup>4)</sup>에서도 “천하의 일에는 근본적인 것과 부차적인

3) “같은 책”, 卷9

것이 있고, 다스리는 데에는 급히 해야 할 것과 천천히 해도 좋은 것이 있다. …… 백성들이 朝廷을 공양하여 부지런히 하되 곤궁하게 하지 말며, 朝廷에서는 백성을 다스림에 간편하게 하되 지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天下之事有本末, 其爲治者有先後. ……使下之共上, 勤而不困; 上之治下, 簡而不勞.)”라 하여 ‘簡而不勞’를 말하였고, <江隣幾墓誌銘><sup>5)</sup>에서는 江隣幾의 치적을 이야기하면서 “君이 사람을 다스릴 때에는 ‘정치를 함에 백성들을 편안히 해주고 그들을 어지럽게 함이 없어야 할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백성들은 그의 簡易함을 좋아하였다(君於治人, 則曰, ‘爲政所以安民也, 無擾之而已’. 故所至, 民樂其簡易.)”라 하여, 江隣幾의 簡易한 정치를 크게 칭찬한 적이 있다. 그리고 “대저 번잡함을 다스리되 그 요체를 얻으면 간단해지고, 간단해지면 쉬이 행하여도 어긋나지 않는다. 오직 간단하게 하고 쉽게 한 뒤에야 그 힘은 수고롭지 않으면서도 여유가 있게 된다(夫理繁而得其要則簡, 簡則易行而不違. 唯簡與易, 然後其力不勞而有餘.)”<sup>6)</sup>라 하여 행정의 효과와 실익을 강구하기도 하였다.<sup>7)</sup>

그런데 歐陽修가 말한 ‘寬簡’의 정치란 백성들을 직접 상대를 하는 정치이므로 그들의 직책과 직무는 지방관으로서 지방행정을 주로 다루는 것과 관련된다. 그렇다면 歐陽修가 ‘寬簡’의 정치를 통하여 이르고자 한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지방관으로서 愛民精神을 바탕으로 백성들을 간편하게 다스림으로써 백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與民同樂의 여지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歐陽修 자신도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寬簡의 정치를 실행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蘇轍의 <歐陽文忠公神道碑>에서 지방관으로서의 歐陽

4) “같은 책”, 卷9, <本論>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논설한 것인데 上, 中, 下 3편이 있다. 中, 下편은 佛敎를 반대하여 儒學을 드러내고 禮義를 제창한 글이다. <歐陽文忠公集>의 編者注에 의하면 이 上편은 慶歷2년(1042)에 초고를 썼다가 만년에 刪定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같은 책”, 卷33

6) “같은 책”, 卷40, <海陵許氏南園記>

7) 劉德清, <歐陽修論稿>(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1, 95쪽.

修의 공적에 대해 “공은 전후 일곱 군의 군수가 되어 그 정치를 살림에 가혹하지 않고, 관대하되 느슨하지 않게 하니, 관리와 백성들이 편안하게 여겼다. 滁州와 揚州 백성들이 심지어 歐陽修를 위하여 살아있는 사람의 사당을 세우기까지 하였다.(公前後歷七郡守, 其政察而不苛, 寬而不弛, 吏民安之. 滁揚之人, 至爲立生祠)”<sup>8)</sup>라 하였고, 韓琦도 “큰 군을 두루 맡아 평정함을 근본으로 하여 분명하되 세세함에 이르지 않게 하고, 관대하되 방종함에 이르지 않게 하여 백성과 관리가 은혜와 칭송을 서로 주고받으니 이미 그 고을을 떠났는데도 추모함이 그치지 않아 滁州와 揚州 두 주에서는 다 살아있는데도 사당을 세웠다(歷典大郡, 以鎮靜爲本, 明不至察, 寬不至縱, 吏民受賜, 既去追思不已, 滁揚二州皆立生祠)”<sup>9)</sup>라고 하였다.

歐陽修에 대한 이러한 蘇轍과 韓琦의 평가를 통해서 歐陽修가 이 ‘寬簡’의 치술을 통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與民同樂할 수 있었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 (2) 與民同樂의 官吏像

歐陽修는 여민동락의 주체가 되어 여민동락할 수 있는 진정한 관리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歐陽修는 40여년간 정치에 몸담아 오면서 중앙관직은 물론 지방관직도 두루 역임하였으므로 관리들에 대한 실상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歐陽修는 <論按察官吏筭子>에서 당시 관리들의 실상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였다.

연로하고 병든 자 혹은 나약하고 재주 없는 자, 혹은 탐욕스럽고 난폭하여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는 자들이 州縣 곳곳에 널려있고 아울러 쫓겨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폐단이 자꾸만 쌓여 쓸모 없는 관리가 너무 많아 저서 천하의 州縣 가운데 열에 아홉 여덟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8) 歐陽修, “앞의 책”, 卷二, <神道碑>

9) “같은 책”, 卷二, <墓誌銘>

지금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은데다 백성들의 부역 또한 더욱 번다하니, 백성들은 한탄하며 상처는 회복되지 않고 깊어만 갑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을 구원하는 데에는 관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致使年老病患者, 或懦弱不材者, 或貪殘害物者, 此等之人, 布在州縣, 并無黜陟. 因循積弊, 冗濫者多, 使天下州縣, 不治者十有八九. 今兵戎未息, 賦役方煩, 百姓敖放, 瘡痍未復, 求其疾苦, 擇吏爲先.)<sup>10)</sup>

이 글은 慶曆 3년(1043년)에 쓴 글이다. 慶曆 3년이면 歐陽修 자신을 비롯하여 范仲淹 등의 개혁파들이 대권을 장악함으로써 新政운동이 일기 시작한 시기였다. 歐陽修는 당시 참된 인재들보다는 연로하고 병든 자·나약하고 재주 없는 자·탐욕스럽고 난폭하여 백성들을 해치는 쓸모없는 자들이 관리로 임용되어 정치가 부패해져 백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시 州縣 가운데 열에 아홉 여덟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고, 백성들의 부역은 더욱 번다하여 심한 고통에 빠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을 구원하는 데에는 관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歐陽修는 같은 慶曆 3년에 쓴 <本論上><sup>11)</sup>에서도 국가를 경영하는 데에 중요한 일이 많지만, 재물을 잘 조절하고 (均財), 군대를 절제하며(節兵), 법을 세우고(立法), 훌륭한 인재를 임용하며(任賢), 명성을 존중해주는(尊名) 다섯 가지를 治國의 급선무로 여겨 서술하였는데, 핵심은 任賢 즉 관리임용에 있었다. 改革政治를 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급선무로 여긴 것이다.

그러면 歐陽修가 생각한 관리로서의 진정한 모습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歐陽修는 王聖紀가 主簿란 관직으로 扶風으로 갈 때 관리로서 해야 할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扶風縣은 潼關 서쪽에 있는데 京城에서 천리 이상 떨어진 곳이다. 따라

10) “같은 책”, 卷1

11) “같은 책”, 卷9

서 백성들에게 불행히 일이 생겨도 은폐되는 것이 많을 것이다. 그들의 生死曲直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縣令·主簿·縣尉 세 사람이다. 백성들의 바라는 뜻이 縣에서 저지되지 않아야 州에 알려질 수 있고 州에서 저지되지 않아야 朝廷에 알려질 수 있다. 백성들의 뜻이 저지되지 않고 朝廷에 알려지려면 縣令·主簿·縣尉 세 사람이 위로 전달해 주어야 한다. (扶風爲縣, 限關之西, 距京師在千里外. 民之不幸而事有隱微者何限. 其能生死曲直者, 令與主簿尉三人. 而民之志得不壅而聞於州, 州不壅而聞於上; 縣不壅而民志通者, 令與主簿尉達之而已.)

관리란 백성과 朝廷의 중간에 서서 백성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위로 전달하여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歐陽修는 이상적인 관리란 관리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與民同樂’의 경지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겼다.

바로 泗州知州 張侯의 사적을 그린 <泗州先春亭記>에서 이러한 일면을 살펴볼 수가 있다.

景祐 2년(1035) 가을에 清河縣 사람인 張侯가 殿中丞의 신분으로 泗州 太守로 부임해왔는데, 도착한 뒤 그는 먼저 백성들에게 평소 泗州의 걱정거리 가운데 먼저 다스려야 할 가장 심각한 재해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백성들은 ‘가장 심각한 재해는 淮水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듬해 봄에 성밖에 제방을 견고하게 만들고자 원래 있던 제방을 이용해서 더 높고 두텁게 확장하려 하니, 제방의 길이는 1만9천2백 尺이요, 인력은 팔만 오천을 필요로 하였다. (제방을 만들려고 할 때) 백성들은 ‘이것은 우리들을 이롭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大役事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력은 州의 병사들에게서 나와야 하고 돌은 南山에서 가져와야 하는데도 백성들은 부담을 알지 못하니 이것은 爲政者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지 않고 큰 이익을 누리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며 서로 힘을 합쳐 쌀 천삼백 석을 내어 부역하는 병사들을 먹였다. 제방이 완성되니 높이가 삼십삼 尺이요, 土石이 견고하여 사나운

재해를 방지하여 오래되어도 무너지지 않았다. 이미 제방이 이루어진 뒤, 또 ‘泗州는 사통팔달의 州이니 왕래하는 손님들을 예로써 접대해야 한다’ 하고서 앞서 지었던 蔣侯의 정자를 이용해 새롭게 단장하여 손님들을 위로하고 전별하는 곳으로 삼아 思邵亭이라 하였다. …… 또 ‘泗州는 천하의 물길이 모이는 곳이어서 매년 가을 차가워 질 때에는 곡식 운반선들이 반드시 이곳에 모인다’ 하면서 常豐倉 서쪽에 두개의 夾室을 만들어 하나는 배의 출입왕래를 관찰하는 용도로 某亭이라 부르고, 하나는 배꾼들의 객사로 사용토록 하여 通漕亭이라 하였다. 그런 뒤에야 ‘나 또한 쉴 곳이 있지?’ 하면서 城 동쪽에 州의 관청을 짓고서 先春亭이라 하였다.(景祐二年秋, 清河張侯以殿中丞來守泗上, 既至, 問民之所素病, 而治其尤暴者曰, 暴莫大於淮. 越明年春, 作城之外堤, 因其舊而廣之, 度爲萬有九千二百尺, 用人之力八萬五千. 泗之民曰, 此吾利也, 而大役焉. 然人力出於州兵, 而石出乎南山, 作大役而民不知, 是爲政者私我也, 不出一力而享大利, 不可. 相與出未一千三百石, 以食役者. 堤成, 高三十三尺, 土實石堅, 捍暴備災, 可久而不壞. 既曰, 泗, 四達之州也, 賓客之至者有禮. 於時因前蔣侯堂之亭, 新之, 爲勞錢之所. 曰思邵亭. ……又曰, 泗, 天下之水會也. 歲漕必凍於此. 於是治常豐倉西門二夾室, 一以視出納, 曰某亭. 一以爲舟者之寓舍, 曰通漕亭. 然後曰, 吾亦有所休乎? 乃築州署之東城上爲先春亭.)<sup>12)</sup>

張侯는 泗州知州로 부임하자마자 바로 백성들의 고통에 관심을 두고서 그들을 위해 제방을 쌓아 水災의 재난을 없애주고, 이어서 객사를 열어 그곳을 왕래하는 빈객들의 편의를 도모한 뒤에야 비로소 자신이 쉴 관아를 세웠다. 이처럼 백성들을 우선적으로 걱정하고 자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관리, 즉 ‘先憂後樂’의 사상을 실현한 관리, 좀더 넓은 의미로 與民同樂할 수 있는 관리를 이상적인 관리라고 여긴 것이다.

歐陽修는 <眞州東園記>에서 그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던 與民同樂의 사상을 실현한 관리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놓고 있다.

그는 또 말하기를 : ‘眞州는 천하의 요충지로 사방의 빈객들이 이곳을

12) “같은 책”, 卷39

왕래하는데, 우리들은 이곳에서 그들과 함께 즐기니 어찌 다만 우리 세 사람만을 위해서겠습니까? 그러나 연못의亭臺는 나날이 더욱 새롭고 풀과 나무는 나날이 더욱 무성하여 사방의 선비들이 하루라도 오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 사람이 때가 되면 모두 이곳을 떠나야 할 것이니, 이 정원에 미련이 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記文을 써 놓지 않으면 훗날 누가 이 정원이 우리 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이 세 군자의 재능과 현명함은 충분히 서로 유익하게 도울 수 있고 또 직무에 있어서도 잘 협력하여 먼저 해야 할 일과 뒤에 해야 할 일을 잘 알아서, 위에 있는 관리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넉넉하게 하였을 것이고, 동남의 여섯 路(路)의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근심의 원망소리가 없게 했을 것이다. 그런 뒤에 한가한 여가에 쉬면서 또한 사방의 어진 사대부들과 여기에서 함께 즐겼을 것이니, 이것은 모두가 칭찬할 만한 것이다.(又曰, 眞, 天下之沖也. 四方之賓客往來者, 吾與之共樂於此, 豈獨私吾三人者哉? 然而池臺日益以新, 草樹日益以茂, 四方之士無日而不來, 而吾三人者有時而皆去也, 豈不眷眷於是哉? 不爲之記, 則後孰知其自吾三人者始也? 予以爲三君子之材賢足以相濟, 而又協於其職, 知所先後, 使上下給足, 而東南六路之人無辛苦愁怨之聲; 然後休其餘閑, 又與四方之賢士大夫共樂於此, 是皆可嘉也.)<sup>13)</sup>

歐陽修는 먼저 許元을 비롯한 그 고을 관리들이 일의 선후에 따라 자신들의 임무를 잘 처리하고, 또 서로 협조하여 조정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킨 정치적 업적을 충분히 긍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東園을 만들어 유람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껏 즐기게 하고, 또 그 자신들도 政事를 보고 난 여가를 이용해 사방 선비들과 함께 즐기므로써 與民同樂의 사상을 실현한 이상적인 관리상으로 보았다. 다시 말하면 지방관리는 마땅히 ‘위에 있는 관리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다 넉넉하게 하여(上下給足)’ ‘백성들이 고통과 근심으로 원망의 소리가 없게 한(人無辛苦愁怨之聲)’ 뒤에 ‘한가한 여가에 쉬면서 또한 사방의 어진 사대부들과 여기에서 함께 즐긴(休其餘閑, 又與四方之賢士大夫共樂於此)’ 사실을 특별

13) “같은 책”, 卷40

히 강조한 것이다. 바로 이점은 <醉翁亭記>의 ‘樂民之樂, 與民同樂’의 사상과 상통함을 알 수 있다.

## 2. 문학이론과의 유관관계

歐陽修의 여민동락의 사상은 그의 핵심 정치사상이면서 주요 문학주제의 하나인 점을 감안한다면 그의 문학이론과도 어떤 방법으로든 일정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여민동락의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豐樂亭記>와 <醉翁亭記>를 중심으로 그의 문학이론과의 유관관계를 잠시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歐陽修는 <梅聖俞詩集序>에서 ‘곤궁해진 후에 시가 좋아진다(窮者而後工)’라고 하여 ‘窮而後工’이란 文學理論을 주장하였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시인으로 뜻을 얻은 사람은 적고 곤궁한 사람은 많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어찌 꼭 그렇기야 하겠는가? 무릇 세상에 전해오는 시들 가운데에는 옛날 곤궁했던 사람들의 말에서 나온 것이 많다. 대저 선비가 가슴속에 학문이나 포부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펼 길이 없을 때에는 대부분 산이나 물가에서 방랑생활을 하며 蟲魚·草木·風雲·鳥獸 등과 같은 것들을 보고 이따금 그것들의 각종 기괴한 면을 찾아 묘사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마음속에 근심이나 울분이 쌓이면 원망하고 풍자하려는 생각이 일어나 죄를 짓고 멀리 귀양간 신하나 과부의 애탄을 말하여 사람들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묘사해 낸다. 대개 시인이 곤궁하면 곤궁할수록 더욱 시가 좋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가 사람을 곤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시인이 곤궁해진 연후에 시가 좋아지는 것이다. (予聞世謂詩人少達而多窮, 夫豈然哉? 蓋世所傳詩者, 多出於古窮人之辭也. 凡士之蘊其所有, 而不得施於世者, 多喜自放於山巔水涯之外. 見蟲魚草木風雲鳥獸之狀類, 往往探其奇怪. 內有憂思感憤之鬱積, 其興於怨刺, 以道羈臣寡婦之所歎, 而寫人情之難言, 蓋愈窮則愈工. 然則非詩之能窮人, 殆窮者而後工也.)<sup>14)</sup>

14) “같은 책”, 卷42

歐陽修는 <梅聖俞詩集序>에서 먼저 작가가 사회환경과 괴리되어 난감한 처지에 빠져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재능을 펴지 못하게 되면 왕왕 산수자연 속에 마음을 두고 멀리 밀려난 신하나 과부의 개탄과 같은 표현하기 어려운 울분의 감정을 외부 경물의 기괴한 면을 빌려 형상적으로 표현해 냄으로써 성숙한 기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歐陽修가 생각한 ‘窮而後工’이란 바로 작가의 억제할 수 없는 창작동기와 작품의 성숙한 기교는 작가와 사회환경의 모순과 서로 비례한다<sup>15)</sup>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곤궁한 이후에 좋아지는(窮而後工)’ 그 이유를 분석하여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지적하였는데, 첫째는 나타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렬한 감정, 즉 ‘마음속에 근심이나 울분의 쌓임(內有憂思感憤之鬱積)’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마음속에 쌓여있는 근심이나 울분의 형상을 생동적으로 표현하고 사람들이 말로 나타내기 어려운 것을 쓰기 위해서는 외부의 경물 묘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보다 쉬워진다는 ‘蟲魚·草木·風雲·鳥獸 등을 본다’는 것이다. 즉 創作이란 하나의 情景相生의 과정이며<sup>16)</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豐樂亭記>와 <醉翁亭記> 두 작품이 歐陽修가 저주로 폄적된 이듬해(慶曆 6년: 1046)에 지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歐陽修 자신도 개혁정치를 펴다가 저주까지 폄적되었으니 난감한 처지에 빠져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 재능을 펴지 못하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그 울분 또한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이 작가의 억제할 수 없는 창작동기를 유발시켰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멀리 귀양온 자신의 울분과 같은 표현하기 어려우면서도 나타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렬한 감정, 즉 ‘마음속에 근심이나 울분의 쌓임(內有憂思感憤之鬱積)’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음속에 쌓여있는 근심이나 울분의 형상 같은 말로 나타내기 어려운 것을 생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는 滁州的 산수자연, 즉 獸

15) 吳小林著, 《中國散文美學史》(黑龍江人民出版社), 1993, 133쪽.

16) 蔡鍾翔·黃保真·成復旺 等, 《中國文學理論史(二)》(北京出版社), 1984, 319쪽.

鳥·山林·滁州人 등의 외부 경물 묘사를 통해서 <豐樂亭記>와 <醉翁亭記> 같은 성숙한 기교의 작품을 써낼 수 있었으니, 바로 情景相生의 과정을 거쳐 훌륭한 創作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들은 바로 작가의 억제할 수 없는 창작동기와 작품의 성숙한 기교는 작가와 사회환경의 모순과 서로 비례한다는 歐陽修의 ‘窮而後工’이란 문학이론의 실천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설명만으로는 ‘窮而後工’說이 與民同樂의 사상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작가가 꺾적이라는 정치적 곤경과 滁州라는 열악한 환경에 처함으로써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梅聖俞詩集序>에서 ‘窮而後工’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을 설명한 ‘산이나 물가에서 방랑생활을 하며(自放於山巔水涯之外)’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말은 뜻을 잃은 사람은 산수자연에 방랑하면서 백성들과 빈번하게 접촉함으로써 몸소 사회생활의 실체를 체험하게 되고, 이렇게 체험한 사회현실을 진지하게 작품 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것이다. 즉, 현실을 반영한 현실주의 문학이기 때문에 작품이 좋아진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바로 歐陽修 자신도 滁州 백성들과 빈번하게 접촉함으로써 몸소 백성들의 생활 실체를 진지하게 체험하였고, 또 與民同樂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진지하게 작품 속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豐樂亭記>와 <醉翁亭記>의 같은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歐陽修의 與民同樂의 사상과 ‘窮而後工’說의 문학이론 이외의 다른 문학이론과의 연관성을 찾아본다면, 歐陽修가 <讀李翱文>·<與尹師老書>에서 언급한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먼저 <讀李翱文>의 내용을 살펴보자.

李翱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道를 지니고 문장을 능숙하게 쓸 수 있었던 사람으로는 韓愈 만 한 사람이 없었다. 韓愈는 일찍이 <感二鳥賦> 한 편을 썼는데, 그 내용은 두 마리 새가 황제에게 바쳐져

영광을 입을 것을 부러워하고, 자신은 밥 한 그릇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시대를 탄식하는 데 불과하였다. 이러한 마음을 미루어 본다면 가령 그가 영광을 입고 희망을 이루기만 하였다면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李翱 같은 사람은 유독 그러하지 않았다. 그의 賦에서는 ‘못 사람들 시끌벅적 뒤섞여 모여서 다들 늙음을 탄식하고 관직 낮음을 탄식하네. 내 마음 돌아보니 그렇지 않아 염려하는 것은 道를 행하여 오히려 잘못될까 함이네’라고 하였다. 그는 또 唐 高祖가 한 무리의 군대로 천하를 취하였는데 후세 자손들은 천하의 힘으로도 하북 땅 하나 수복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며 국가를 근심하였다. 오호라! 가령 당시의 여러 군자들이 늙음을 탄식하고 낮은 관직을 탄식하는 마음을 李翱가 국가를 위해 근심하는 마음으로 바꾸었다면 唐 천하가 어찌 어지러웠으며 망하였겠는가! (凡昔翱一時人, 有道而能文者莫若韓愈. 愈嘗有賦矣, 不過羨二鳥之光榮, 歎一飽之無時爾. 推是心使光榮而飽, 則不復云矣. 若翱獨不然, 其賦曰, 衆囂囂而雜處兮, 咸歎老而嗟卑. 視予心之不然兮, 慮行道之猶非. 又怪神堯以一旅取天下, 後世子孫不能以天下取河北, 以爲憂. 嗚呼, 使當時君子皆易其歎老嗟卑之心爲翱所憂之心, 則唐之天下豈有亂與亡哉!)<sup>17)</sup>

이 글은 景祐 3년(1036년) 歐陽修가 夷陵승으로 폄적되어 가는 도중에 李翱의 문장을 읽고 쓴 한 편의 독후감이다. 그는 韓愈의 <感二鳥賦>처럼 개인의 실의를 내용으로 한 문학작품을 지어서는 안되며, 李翱처럼 천하의 安危를 걱정하는 그런 문장을 지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바로 歐陽修는 개인의 ‘곤궁함’을 승화시켜 국가의 治亂을 다루는 문학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문학은 현실생활·사회정치를 위한 사회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與尹師老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余安道와 나는 楚州에서 일찍이 인간의 禍福의 일에 대해 상세히 토론하였는데 安道 또한 내가 이번에 한 일에 대해 옳다고 하였습니다. …… 나는 또 늘 安道에게 말하기를, 매번 보니 前代의 유명한 사람들은 정치적 인 일을 논할 때에는 감개격동하여 죽음도 피하려 하지 않아 정말로 義를

17) 歐陽修, “앞의 책”, 卷23

이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꺾어진 곳에 이르면 오히려 슬퍼하고 원망하여 곤궁함과 수심을 견디지 못하는 생각들이 문장 속에 나타나 그들의 마음 속에 즐거워하고 슬퍼함이 평범한 사람과 다름이 없었는데, 비록 韓愈같은 사람도 이러한 누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安道에게 경계시켜 그에게 신중히 하여 근심에 빠져 슬퍼하는 문장을 짓지 말게 하였습니다. (安道與予在楚州, 談禍福事甚詳, 安道亦以爲然,……又常與安道言, 每見前世有名人, 當論事時, 感激不避誅死, 眞若知義者. 及到貶所, 則戚戚怨嗟, 有不堪之窮愁形於文字. 其心歡戚無異庸人, 雖韓文公不免此累. 用此戒安道, 慎勿作戚戚之文.)<sup>18)</sup>

歐陽修와 余靖·尹洙 등은 范仲淹을 구원하려다가 夷陵·郢州 등으로 각각 꺾적되었다. 따라서 자신들이 옳다고 여겼던 일들을 추진하다 반대파의 반격에 의해 좌천됨으로써 정치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울분이 가슴 속에 쌓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歐陽修는 특별히 韓愈를 예로 들면서 余靖에게 가슴속에 쌓인 개인적인 울분을 드러내어 슬퍼하는 그런 글을 짓지 말도록 당부했을 것이다. 실제 韓愈는 佛骨을 궁중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다 潮州로 꺾적된 후 평소에 그토록 강개했던 기운은 사라지고 자신의 가련한 모습을 드러낸 <潮州刺史謝上表> 같은 작품을 쓰기도 하였다. 歐陽修는 이런 점을 생각하고 아무리 곤궁할지라도 개인의 슬픔을 승화시켜 천하의 安危를 걱정하는 내용의 문학작품을 쓰도록 강조하여 문학의 사회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歐陽修 자신도 저주로 꺾적된 이 기간에 與民同樂의 정치이상을 그려낸 <醉翁亭記>·<豐樂亭記> 등의 작품을 씀으로써 개인의 실의를 내용으로 한 문학작품보다는 李翱처럼 천하의 安危를 걱정하는, 즉 개인의 곤궁함을 승화시켜 국가의 治亂을 다루는 문학이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을 확실히 실천하였던 것이다.

18) “같은 책”, 卷17, <與尹師魯書> 5편 가운데 제1편.

### Ⅲ. 與民同樂의 실례

그러면 이번에는 관리의 직분을 다하고서 백성들과 함께 즐긴 與民同樂의 자취를 쓴 대표적인 작품 <豐樂亭記>와 <醉翁亭記>를 가지고 간단히 고찰해보도록 하자.

歐陽修의 與民同樂의 자취를 가장 잘 반영한 작품으로는 먼저 <豐樂亭記>를 꼽을 수 있는데 그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이곳에 왔을 때, 이 지역이 산간벽지인데다 일이 간략한 것을 즐거워하였고, 또 그 풍속이 편안하고 한가함을 사랑하였다. 이미 산골짜기에서 이 샘을 찾아 날마다 滁州 사람과 함께 고개를 들어 산을 바라다보기도 하고 머리를 숙여 샘물의 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봄에는 향기 그윽한 꽃을 따고, 여름에는 큰 나무 그늘 밑에서 쉬며, 가을에는 바람일고 서리 내리며, 겨울에는 얼음 열고 눈이 내려 산의 모습이 가파르고 곧게 드러나 맑고 수려하니 사계절의 경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행히도 이곳의 백성들은 작물의 풍작으로 즐거워하면서 나와 함께 노니는 것을 좋아한다. 따라서 나는 이곳 산천의 특징을 근거로 해서 이곳 풍속의 아름다움을 설명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편안하게 이 풍년의 즐거움을 누리는데 다행히 태평무사한 때에 태어났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무릇 天子의 은덕을 선양시켜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것은 자사(刺史)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마침내 이 일을 써서 그 정자에 豐樂이라는 이름을 붙였다.(修之來此, 樂其地僻而事簡, 又愛其俗之安閑. 既得斯泉于山谷之間, 乃日與滁人仰而望山, 俯而聽泉. 掇幽芳而蔭喬木, 風霜水雪, 刻露清秀, 四時之景, 無不可愛. 又幸其民樂其歲物之豐成, 而喜與子游也. 因爲本其山川, 道其風俗之美, 使民知所以安此豐年之樂者, 幸生無事之時也. 夫宣上恩德, 以與民共樂, 刺史之事也. 遂書以名其亭焉.)<sup>19)</sup>

이 글은 <豐樂亭記>의 마지막 단락으로 豐樂亭이라 이름을 붙이게 된

19) “같은 책”, 卷39

유래를 서술한 부분이다. 즉, 歐陽修가 豐樂亭이라 이름한 것은 백성들이 그 해 농산물의 풍작으로 刺史인 歐陽修 자신과 풍년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란 데에서 유래되었음을 먼저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백성들이 편안히 풍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원인은 다행히도 무사태평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임을 일깨우고 나서, 바로 刺史, 즉 관리란 ‘천자의 은덕을 선양시키고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즐기는 것’임을 천명함으로써 與民同樂의 정신이 이 글의 주제임을 암시하였다. 사실 백성들이 刺史와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 해에 풍년이 들어 생활이 풍족해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래서 천자나 자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듯도 하지만, 이면에는 五代 때에 치열한 전쟁터였던 이곳이 지금은 장사꾼이나 賓客들도 찾아오지 않는 평화로운 고장<sup>20)</sup>임을 상기한다면 그만큼 天子의 은택을 입은 것이고, 또 官吏의 폭정이나 수탈이 없었던 원인이기도 하므로 백성들과 刺史가 진정으로 同樂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歐陽修가 滁州 백성들과 同樂할 수 있었던 원인을 이 글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사실 부족하다. 따라서 歐陽修가 滁州를 다스리기 전의 滁州的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보다 이해하기가 쉽다.

歐陽修가 저주를 다스리기 1년 전인 慶曆 4년(1044)에 滁州가 속해 있던 江淮지방의 상황을 그는 <論救賑江淮飢民劄子>에서 “풍문에 듣자니, 江淮 이남은 금년 봄에 큰 가뭄이 들어 우물과 샘이 말라버리고, 소와 같은 가축이 병들어 죽고 닭이나 개도 살아나지 못하는 곳이 있다 합니다. 농부들은 업을 잃고, 백성들은 방황하고 있다 합니다. …… 江淮의 백성들은 위로는 天災를 입었고 아래로는 도적에게 고통을 당하며, 안으로는 官廳의 무거운 세금을 내어야 하고, 밖으로는 運使의 가렴주구를 당하여 타 지방에 비해 그 고통이 더욱 심하다 합니다.(風聞江淮以南, 今春大旱, 至有井泉枯渴牛畜瘡死鷄犬不存之處. 九農失業, 民庶敖敖 …… 江淮之民, 上被天災, 下若賊盜, 內應省司之重斂, 外遭運使之誅求. 比於他方, 被若尤甚.)”<sup>21)</sup>라

20) “같은 책”, 卷39 <豐樂亭記>, “滁於五代干戈之際, 用武之地也. …… 今滁介於江淮之間, 舟車商賈, 四方賓客所不至; 民生不見外事, 畎畝衣食, 以樂生送死.”

고 할 정도로 滁州가 속한 江淮地方은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그가 滁州로 갔던 慶曆 5년에는 “다행히 금년에는 江淮지방에 큰 눈이 내려 올 봄의 二麥이 희망이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도적질하지 않고, 郡도 평소 일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幸今歲淮甸大雪, 來春二麥有望. 若人不爲盜, 而郡素無事, 何幸如之)”<sup>21)</sup>라고 하고, 또 “여러 懸들이 곡식이 잘 익어 풍년이 들고 공무는 적으며, 집집마다 배부르고 따뜻하니 임금님 은혜 입었네(諸懸豐登少公事, 一家飽暖荷君恩)”<sup>22)</sup>라 하여, 재난이 들었던 지난해에 비해서 백성들이 훨씬 풍요로웠던 것 같다. 이러한 농민의 노력과 자연조건의 호조로 滁州的 농작물은 풍작이 되었으니 지난해의 암담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자연히 백성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할 만하였고, 또 편적되어 온 歐陽修로서도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이 마침 풍년이 들었으니 조정에서 이루지 못한 정치 이상을 마치 外職에 와서 실현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므로 풍년의 기쁨을 백성들과 同樂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치적으로 여겼을 것이다.

歐陽修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醉翁亭記>에서는 與民同樂의 자취를 보다 더 생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태수가 손님들과 함께 이곳에 와서 술을 마시게 되면 조금만 마셔도 언제나 취했고, 또 나이도 그 중에서 제일 많았기 때문에 스스로 醉翁이라 불렀던 것이다. 醉翁이란 뜻은 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山水之間에 있는 것이니 山水의 즐거움을 마음에 얻어 술에다 그것을 기탁한 것이다. …… 물건을 등에 짊어진 사람들은 길에서 노래하고, 길 가던 사람은 나무 아래에서 쉬며, 앞서 가는 사람은 부르고, 뒤에 따라 가는 사람은 응답한다. 늙은이는 허리를 굽혀 걷고, 어른은 아이를 끌어주면서 왕래함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滁州 사람들이 노니는 모습이다. 시냇가에서 고기를 잡으니 물이 깊어 고기는 살찌고 醴泉의 물로 술을 빚으니 샘물은 향기롭고 술은

21) “같은 책”, 卷8.

22) “같은 책”, 卷1, <與韓忠獻王>

23) “같은 책”, 卷11, <書王元之畫像側>

맑기도 하다. 산나물 들나물이 잔치상에 어지럽게 차려져 있는 것이 태수의 연회자리다. 무르익은 연회의 즐거움은 결코 음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투호놀이 하는 사람들은 병 속에 화살을 적중시키고, 장기를 두는 사람은 이기며, 술잔과 산대가지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떠들썩하게 시끄러운 것은 못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다. 창백한 얼굴에 백발의 늙은이가 그들 옆에 쓰러져 있는데 태수가 취한 모습이다. 얼마 뒤 석양이 산에 내리고 사람들의 그림자도 어지럽게 흩어지니 태수가 집으로 돌아가고 손님들도 뒤를 따른다. 나무숲엔 그늘이 덮고, 새 울음소리가 아래위에서 들리니 놀던 사람 떠나고 새들이 즐긴다. 그러나 새들은 다만 산림의 즐거움만 알지 사람의 즐거움은 모르며, 손님들은 태수를 따라 노닐며 즐거워 할 줄만 알지 태수가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긴다는 것은 모른다. 취하여서는 그들과 함께 즐기고 깨어서는 문장으로 서술할 수 있는 사람이 태수이다. 태수란 누구인가. 여릉사람 歐陽修이다. (太守與客來飲于此, 飲少輒醉, 而年又最高, 故自號曰醉翁也. 醉翁之意不在酒, 在乎山水之間也. 山水之樂, 得之心而寓之酒也. …… 至于負者歌于途, 行者休于樹, 前者呼, 後者應, 僂僂提携, 往來而不絕者, 滁人游也. 臨溪而漁, 溪深而魚肥; 釀泉爲酒, 泉香而酒冽; 山肴野蔌, 雜然而前陳者, 太守之宴也. 宴酣之樂, 非絲非竹; 射者中, 奕者勝, 觥籌交錯, 坐起而喧譁者, 衆賓懼也. 蒼顏白髮, 頹乎其中者, 太守醉也. 已而夕陽在山, 人影散亂, 太守歸而賓客從也. 樹林陰翳, 鳴聲上下, 游人去而禽鳥樂也. 然而禽鳥知山林之樂, 而不知人之樂; 人之從太守游而樂, 而不知太守之樂其樂也. 醉能同其樂, 醒能述以文者, 太守也. 太守謂誰, 廬陵歐陽修也.)<sup>24)</sup>

그는 먼저 醉翁이라 부른 이유를 ‘술을 마시게 되면 조금만 마셔도 언제나 취했고, 또 나이도 그 중에서 제일 많았기’<sup>25)</sup> 때문임을 서술하고, 또 그를 진정으로 취하게 하는 것은 ‘술 때문이 아니라 山水之間에 노니는 즐거움 때문’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自然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만이 아닌 滁州 사람들의 노니는 즐거움과 연회의 즐거움을 즐기는 與民同樂이

24) “같은 책”, 卷39

25) “같은 책”, 卷3, <題滁州醉翁亭> 이란 詩에 : “四十未爲老, 醉翁偶題篇. 醉中遺萬物, 豈復記吾年. ……”이라 하여 醉翁이라 한 것이 사실 나이와는 별 관계가 없음을 밝히고 있음.

있기 때문이다. <豐樂亭記>에서 말한 대로 백성들이 한해 동안의 풍성한 수확을 즐거워하면서 歐陽修와 함께 노니는 것을 즐거워하였듯이(其民樂其歲物之豐成, 而喜與予遊也), 歐陽修 또한 그들이 그와 같은 풍년의 즐거움을 편안히 누릴 수 있는 까닭이 다행히 태평무사 할 때에 살아가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면서(使民知所以安比豐年之樂者, 幸生無事之時) 자신과 노니는 것을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모습 그 자체를 자신이 다시 즐기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자신이 말한 與民同樂의 실천이며 理想인 것이다.<sup>26)</sup> 이처럼 <醉翁亭記>는 全篇이 바로 ‘樂’을 소재로 시작하여 ‘樂’으로 귀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獸鳥·山林·人·太守의 ‘樂’으로 나누어 설명하다 모든 사람과 함께 즐기는 것(同其樂)으로 귀착시키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등짐을 짊어진 사람들은 노래하고, 길 가던 사람들은 나무 그늘에서 쉬기도 하며, 앞에서 부르면 뒤에서 화답하고,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아이의 손을 끌고 가는 어른도 있다. 이들은 모두 놀러 가는 滁州 사람들도이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이렇게 놀던 사람들이 돌아간 뒤에는 새들이 자연을 찬미하고 노래한다. 이것이 禽鳥의 즐거움이다. 그러나 새들은 山林의 즐거움만 알지 사람들의 즐거움은 알지 못한다. 사람들 또한 太守를 따라 연회를 즐기고 投壺 놀이나 장기를 두는 등의 즐거움만 아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즐거움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滁州 고을이 잘 다스려져 그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 자체를 즐기는 太守의 樂은 모른다. 바로 태수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이것이 태수의 즐거움이다. 이렇듯 새와 백성과 태수가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것 이것이 同其樂, 즉 與民同樂의 참 모습이다.

#### IV. 결 론

이상으로 歐陽修의 與民同樂의 사상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찰한 결과 다

26) 權鎬鐘, <歐陽修詩研究>(서울대학교 博士學位論文), 1992, 162쪽

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민동락사상의 밑바탕에는 위정자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며 백성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歐陽修는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백성들이 생산한 것을 절약하여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백성의 힘을 헤아려서 비용을 절약하는 것(量民而用有節)’이 節用愛民임을 역설하면서 백성들이 여유가 있어야 여민동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歐陽修는 節用愛民의 사상을 바탕으로 치술 방면에서 寬簡의 정치이론을 주장하였는데, 이 寬簡의 정치 또한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을 관대하고 간소화해줌으로써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여민동락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與民同樂의 官吏像과 관련하여 歐陽修는 여민동락의 주체가 되는 관리로서의 진정한 모습, 즉 여민동락의 관리상을 중시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歐陽修는 당시의 관리들에 대한 실상을 참된 인재들보다는 백성들을 해치는 쓸모 없는 자들이 관리로 임용되어 정치가 부패해져 백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상태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을 구원하는데에는 관리를 잘 선택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있다. 歐陽修가 생각한 관리로서의 진정한 모습은 백성과 조정의 중간에 서서 백성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위로 전달하여 백성의 고통을 이해하고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임을 지적하는 한편 관리의 직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백성의 고통을 덜어주고 난 후 백성들과 함께 즐기는 ‘與民同樂’까지를 실현하는 것이 보다 더 이상적인 관리로 보았다.

歐陽修의 여민동락의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豐樂亭記>와 <醉翁亭記>를 그의 문학이론과 비교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豐樂亭記>와 <醉翁亭記> 두 작품 다 歐陽修가 저주로 편집된 뒤에 지어진 작품들임을 감안하면 작가 자신도 어려운 처지에 빠져서 멀리 밀려난 신하의 개탄과 같은 표현하기 어렵고 나타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을 외부의 경물 묘사를 통해서 이처럼 성숙한 기교의 작품을

써낼 수 있었으니 바로 情景相生의 과정을 거쳐 훌륭한 創作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 작가 자신이 滁州 백성들과 빈번하게 접촉함으로써 몸소 체험한 사회현실을 진지하게 작품 속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한편 歐陽修는 <讀李翱文>이나 <與尹師魯書>에서 그는 개인의 실의를 내용으로 한 문학작품을 지어서는 안되며, 천하의 安危를 걱정하는 그런 문장을 지어야 한다고 하여 현실생활·사회정치를 위한 사회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歐陽修 자신도 저주로 폄적된 이 기간에 與民同樂의 정치이상을 그려낸 <醉翁亭記>·<豐樂亭記> 등의 작품을 씀으로써 개인의 실의를 내용으로 한 문학작품보다는 천하의 安危를 걱정하는 문학이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을 확실히 실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관리의 직분을 다하고서 백성들과 함께 즐긴 與民同樂의 자취를 가장 잘 반영한 작품인 <豐樂亭記>와 <醉翁亭記>를 살펴보았다.

<豐樂亭記>에서는 마침 찾아온 풍년으로 자연히 백성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할 만하였고, 또 폄적되어 온 歐陽修로서도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이 때마침 풍년이 들었으니 조정에서 이루지 못한 정치이상을 마치 외직에 와서 실현한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므로 풍년의 기쁨을 백성들과 同樂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醉翁亭記>에서는 醉翁이라 부른 이유를 ‘술을 마시게 되면 조금만 마셔도 언제나 취했고, 또 나이도 그 중에서 제일 많았기’ 때문임을 서술하고, 또 그를 진정으로 취하게 하는 것은 ‘술 때문이 아니라 山水之間에 노니는 즐거움 때문’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자연 그 자체가 주는 즐거움만이 아닌 滁州 사람들의 노니는 즐거움과 연회의 즐거움을 즐기는 與民同樂과 또 자신과 노니는 것을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모습 그 자체를 자신이 다시 즐기는 진정한 與民同樂의 자취를 보다 생동적으로 그리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參考文獻>

- 歐陽修,《歐陽修全集》(臺北:世界書局),1983.
- 蔡世明,《歐陽修的生平與學術》(臺北:文史哲出版社),1980.
- 林子鈞,《六一居士歐陽修》(臺北:莊嚴出版社),1983.10,2版.
- 劉德清,《歐陽修論稿》(北京師範大學出版社),1991.
- 陳蒲清注譯,《歐陽修文選讀》(長沙:岳麓書社),1984.
- 陳必祥注譯,《歐陽修散文選》(香港:三聯書店),1990.
- 韓愈,《韓昌黎集》(臺北:河洛圖書),1975.
- 吳小林,《中國散文美學史》(黑龍江人民出版社),1993.
- 朱世英·郭景春,《唐宋八大家散文技法》(武漢:長江文藝出版社),1989.
- 程千帆·吳新雷,《兩宋文學史》(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1.
- 成復旺等,《中國文學批評史》(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9.
- 權鎬鐘,《歐陽修詩研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2.8.
- 袁行霈·孟二冬·丁放,《中國詩學通論》(安徽教育出版社),1994.
- 蔡鍾翔·黃保真·成復旺等,《中國文學理論史(二)》(北京出版社),1984.
- 杜維沫·陳新選注,《歐陽修選集》(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6.
- 曾棗莊主編,《歐陽修詩文賞析集》(巴蜀書社),1989.
- 劉子健,《歐陽修的治學與從政》(香港:新亞研究所,1963.5 初版)(臺北:新文豐出版公司,1984.10 補正再版)
- 曾子魯,《韓歐文探勝》(北京:中國文學出版社),1993.
- 郭魯鳳,《歐陽修散文研究》(韓國外國語大學校 博士學位論文),1991.
- 韓武熙,《中國歷代散文選》(서울:檀國大出版部),1982.
- 金喆洙,《唐宋八家文》(서울:博英社),1974.

## 〈中文提要〉

欧阳修的‘与民同乐’思想源自于他的政治思想. 欧阳修‘与民同乐’的思想理论基础是‘爱民说’和‘宽简说’. 欧阳修的‘爱民说’根据关心民生, 体恤民情而来, 主张节用爱民. 他的‘宽简说’指为政宽而不苛, 简而不繁.

欧阳修认为担当政治者, 就是官吏, 要实现‘与民同乐’的思想, 选拔好的官吏是最重要的. 因此他很赞扬为人民作事, ‘与民同乐’的官吏.

欧阳修因与范仲淹韩琦等一同推行‘庆历新政’而先後被贬. 欧阳修持有正确的政治主张和具有一定的政治才能, 但是由于受到守旧派官僚们的排挤, 而贬至滁州任知州. 欧阳修到滁州后写了〈丰乐亭记〉和〈醉翁亭记〉. 这些文章绝不单纯地表现作者自己的官场失意, 从这些文章的字里行间, 我们可以感到作者的与民同乐的积极的政治思想.

〈丰乐亭记〉描写了丰山一带山青水秀的自然风光和人民丰足安乐的生活, 表现出积极向上的精神, 同时也蕴含了丰富的政治理想. 作者‘宣上恩德, 以与民共乐’就说得极为明白.

在〈醉翁亭记〉中“太守与客来饮于此, 饮少辄醉, 而年又最高, 故自号曰醉翁也. 醉翁之意不在酒, 在乎山水之间也. 山水之乐, 得之心而寓之酒也. ……然而禽鸟知山林之乐, 而不知人之乐; 人之从太守游而乐, 而不知太守之乐其乐也”. 首先描写‘山水之乐, 得之心而寓之酒也’后, 就分别描写太守游山之乐·醉中之乐, 整篇文章最後结到‘与民同乐’再一次体现作者的政治理想.

주제어 : 與民同樂, 愛民說, 寬簡說, 豐樂亭記, 醉翁亭記